

우리는 “모두가 꽃이야”



신세철의
쉬운경제

80년대 중반인가 장흥 앞바다 파도와 김발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그린 한승원 작가의 소설 ‘그 바다를 넘어서’를 읽고 줄거리보다 문장에 자연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깃들었음을 느꼈다. 파도치는 바다와 어민들의 생명줄인 김발에 대한 작가의 깊은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수십년 후 그의 딸 한강 작가가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흥 태생인 어떤 선비에게, 한강이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사실, 소설 ‘채식주의자’를 읽기는 읽어도 작가가 던지는 깊은 뜻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릴 때 고향에서 벌어지는 작두춤 보면서 가졌던 비현실적 느낌도 가졌다.

그 뒤로 우리나라 정남진 앞바다의 수평선과 푸른 파도를 보고 싶었으나 약속이 자주 틀어져 아직도 가지 못했다. 수년 전 서점에서 두리번거리다 “할매들은 詩방”이라는 시집을 집어 들었다. 장흥 ‘시골 할

머니’들이 뒤늦게 한글을 깨치고 시를 배워 엮었는데 할머니들의 꾸밈없는 인생 역정에 순수함이 여물져 있었다. 지금도 가끔 집에서 읽어보고 감동도 받고 성찰도 한다. 나이 7~90이 되어 처음으로 연필을 잡아봤다는 할머니들이 어려웠던 과거와 그나마 다행인 현재와 미지의 내세를 적었다. 어른이 아닌 어린이가 쓴 동시처럼 천진난만한 느낌과 순수한 맛을 낸다.

90세 김남주 아기(?)는 ‘모두가 꽃이야’라는 시를 썼다.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들에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아무데나 피어도 꽃이고 이름 없이 피어도 꽃이야.//봄에 피어도 꽃이야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물레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이 시를 읽으면서 박애 정신이 깃든 ‘홍익인간’ 이념을 떠올렸다. ‘아무데서나 피어도’ 꽃처럼 아름답고 ‘물레 피어도 예쁘니 무슨 꽃이든 꽃은 모두 꽃처럼 대우’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바닷가 마을에서 세상 이치를 관조하지도 못하고 부엌데기로 고생만 한 할머니께서 이토록 마음 씀이 크니 어찌 아니 놀라운가? 사람은 모두 사람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돼먹지 못한 썰렁 의식이 곳곳으로 번져가며 간질간질해진 우리 사회가 귀담

아야 할 말이 아닐까?
옛그제 새벽, 신문을 집어 들자 1면에 수줍은 웃음을 웃는 여성의 대형 사진과 함께 아시아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했다. 이 땅에서 한국인 모두가 축복받을 상쾌한 장면으로 몇 번 겪어보지 못한 설렘이다. 올해 노벨상으로 한강 작가가 선정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세계 유수의 언론이 한강에게 보낸 평가를 종합해 보면 아픈 이들의 상처를 공감하며 함께 치유하려 다짐한다는 이야기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 했는데, 인간 세상에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모두가 꽃이야’ 시를 지은 ‘김남주 아기’가 일찍이 글을 배우고 세상을 읽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서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아픔을 어루만지려 노력한 네루다(P. Neruda) 같은 불세출의 시인이 되었는지 모른다. 작가 한강도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이 잘못되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아픔들을 공감하고 치유해 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모두 꽃이 되는 그날까지. /경제칼럼니스트

주택연금과 역(逆)효도



기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TV, 신문 등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를 상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란 뉴스를 자주 접한다. 현재 70대 이상 노인 세대는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년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십 억원대의 자산을 쌓고도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는 노인도 많다. 젊은 시절 쌓아둔 재산은 있지만, 축적한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 자금은 없는 경우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이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을 공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 가격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와 가족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고, 사망 시에는 그 혜택이 가족에게 계승된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는 지난 7월에서야 간신히 10만명을 넘겼다. 일부 가입자가 중도 상환을 통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가입자 수는 이보다 적다.

주택연금 가입 기피 요인은 현재 보유한 유일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꼽힌다. 한 채권인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될까 싶어, 부모가 적은 생활비로 어려운 생활을 자처하는 ‘역(逆)효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이 가입자에게 크

게 유리해 가입 가치가 높은 상품이라고 강조한다. 가입 당시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지급액을 보전해주며, 반대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중도 상환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메트로신문에서 개최한 재테크포럼에서 한 부동산금융 전문가는 “노인들은 혹여 자식 세대에게 주택 한 채도 물려주지 못할까 두려워 주택연금이 좋은 상품이란 이야기를 듣고도 좀처럼 가입하지 못한다”며 “그러나 자식 세대가 먼저 가입을 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시대가 자기 앞가림조차 하기 어려워 ‘효도’가 사치란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어려운 생활을 자처하는 ‘역효도’만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6일 (음 9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세상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성공. **48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60년생** 꿈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72년생** 힘든 일이라도 미루지 말자. **84년생** 불거리가 많다.
- 37년생** 반려 아기를 키우려면 자금계획을 먼저 세워야. **49년생** 허나를 투자하고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61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그동안의 빚을 갚아준다. **73년생**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85년생** 실비보험을 들여야 할 것.
- 38년생** 작은 성과가 있으나 만족하고 감사. **50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 않는다. **62년생** 절이 싫으면 불경하고 들추지 말고 떠나가도록. **74년생** 보험실명명을 찬찬히 들고 돈에 맞추어 들도록. **86년생** 존재하지 않는 일은 잊어라.
- 39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니 행운이 가까이. **51년생** 집 내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기뻐이다. **63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 **75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 **87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40년생** 이것저것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니 만회하기 어렵다. **52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한다. **6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재물 덕이 크다. **76년생** 반려 아가 먹이만 주지 말고 목욕을 시켜라. **88년생** 마음은 아직 희망적이다.
- 41년생** 친분이 두터울수록 예의와 경유를 분명히. **53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65년생**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77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경야독 공부로 극복하라. **89년생** 조상 덕을 보는 날.
- 42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못 가니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마라. **54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은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66년생** 꾸르는 들에 이끼가 끼지 않으니 꾸준히 노력. **78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90년생** 힘을 합쳐라.
- 43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격려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55년생** 모두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할 줄 알아야. **67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79년생** 행동에 앞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지녀라. **91년생** 돈 잘 사람은 없다.
- 44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56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괜한 일. **68년생** 두 달 전부터 노력한 만큼 좋은 일이 있겠다. **80년생**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하려던 일을 늦추는 것도 상책. **92년생** 안 되면 되게 해야.
- 45년생**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우려. **57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조금은 위로로. **69년생** 배우자와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81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듯이 고정관념을 바꾸자. **93년생** 움직여서 시작을.
- 46년생** 움직인 만큼 소득도 따른다. **5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외출 삼가. **70년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피나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는가. **82년생** 동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뜻하지 않은 도움을. **94년생** 뜻밖의 기쁜 소식이다.
- 47년생** 떠나가는 나그네 잡지 마라. **59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71년생** 공자께서도 말만 듣고는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했다. **83년생** 큰일이 아닌 작은 업무라도 책임 있게 해나기. **95년생** 신해진미가 바로 옆에 있다.

김상회의 四季 하늘이 열린 날

2024년 10월은 휴일이 풍성하다. 원래 휴일인 개천절을 위시하여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 징검다리 근무일인 10월 2일과 4일에 휴가를 낸다면 근 2달 휴일이 가까운 연휴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국가 공휴일은 그저 공휴일일 뿐이다. 얼마 전 지난 추석과 같은 명절도 그리하다. 인사를 나누며 친인척 간의 도리와 우의를 다지라는 날이 대체휴일까지 주위하며 명절을 보내라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그런데도 여러 국가 공휴일 중에 개천절은 의미가 깊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뿌리를 알려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자국민들만의 뿌리 신화가 있다. 유대인이나 기독교도들은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의 뿌리이자 조상이라고 믿고 번성의 원동력으로 삼아온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민족의 시조를 단군으로부터, 그 단군은 환웅으로부터, 그 환웅은 제석천왕이라 여겨지는 환인의 자손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고 이는 하늘님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

우리 민족의 시원을 따져보는 것 이상의 심오한 사상도 있으니 인도를 비롯한 중국 등 동북아 사람들의 의식 속에 환인은 범천왕이자 하늘님인 것이다. 기독교의 하나님도 불교에서 불 때는 범천신 중의 하나로 보고 있으니 각각의 나라마다 자기를 머리 위의 하늘 세계 천신을 모시고 있는 것이라 보아도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 선조들은 하늘이 열리고 신단수(神壇樹) 아래 환웅이 강림하여 신시를 세워 단군을 낳고 무릇 우리 민족의 효시와 번성을 이루기 시작했다. 우리 한민족의 우주가 펼쳐지는 시작점인 것이다. 지금은 마니산 참성단에서 약소하게 개천절 의식을 기리는 정도로 그 의미가 많이 약해졌지만 스스로 우리의 뿌리를 모르고 경시 여긴다면 누구라도 나를 존중해줄 수 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4			8		2	1	
				2	1	4		9
8				6		5		
			2					
5							6	
				9				
	5		9				3	
6		1	3	5				
4	3		1				5	6

					3		6	
3	4	2			7			
7			1	5		9		
6	1					8		
	2					9		
	3					6	1	
	5		9	3			7	
		7			4	2		6
6		1						

QR코드
할인도서

9	9	6	2	8	1	2	8	7
8	7	2	2	9	6	1	6	9
2	8	1	9	6	7	9	2	8
9	1	8	6	7	9	8	2	2
2	9	2	8	1	8	7	9	6
7	6	8	9	2	2	9	1	8
8	2	9	7	9	6	2	8	1
6	8	7	1	2	2	8	9	9
1	2	9	8	8	9	6	7	2

6	9	8	2	2	1	8	9	7
9	8	2	7	8	9	2	1	6
7	2	1	9	8	6	8	9	2
1	2	9	2	7	8	6	8	9
8	7	6	1	9	9	2	8	2
2	8	9	6	2	8	1	7	9
2	6	8	9	1	7	9	2	8
9	1	2	8	9	2	7	6	8
8	9	7	8	6	2	5	2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3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3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